

종투사 발행어음 8파전… 고금리 경쟁에 커지는 운용 부담

8개사 체제 확대, 최대 138조 발행 후발사 가세 고객자금 유치전 본격화 특판금리 올라 조달비용 부담도 커져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단계적 확대 리스크관리 역량 등이 성패 좌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발행어음 시장 경쟁이 조달 규모를 늘리는 단계에서 비용과 운용수익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삼성증권이 8번째 사업자로 합류한 가운데 1년물 금리도 연 5%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증권사들은 고객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와 함께 이를 웃도는 운용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 국내 8개 증권사의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총 69조 2032억원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으로, 이론상 8개사의 발행 한도를 합치면 138조 4064억원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며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합류했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이어 지난해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



서울 여의도 전경.

투자증권이 차례로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삼성증권까지 가세하면서 발행어음 시장은 8개사 체제로 확대됐다.

실제 시장에는 신규 사업자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삼성증권이 합류하기 전이었던 올해 6월 말 기준 7개사의 발행어음 잔액은 55조 9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4개사의 잔액이 50조 940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5조원 늘었다. 후발주자인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도 6월 말까지 총 3조 1052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자가 늘면서 고객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신규 고객 등을 대상으로 2~90일물에 세전 연 5.5% 금리를 적용하는 첫 발행어음 특판을 선보였다. 앞서 키움증권은 생애 최초 계좌 개설 고객에게 1년물 연 5%, 한국투자증권은 신규 자금을 1년물 연 4.9%와 6개월물 연 4.7%, 신한투자증권은 6개월물 연 4.5% 상품을 내놓는 등 고금리 특판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조달한 뒤 기업금융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증권사가 부담해야 하는 조달비용도

커진다. 자금 유치 경쟁이 심해져 금리 수준이 올라갈 경우 조달한 자금을 통해 그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수진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다수 회사의 발행어음 동시 진입은 조달 비용 상승 및 운용 자산 확보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증권사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 선별 능력과 리스크 통제 수준이 향후 증권사들의 신용도와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특히 후발주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6월 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은 한국투자증권 22조 4680억원, KB증권 11조 32억원, 미래에셋증권 10조 5776억원, NH투자증권 8조 7752억원 등 기존 사업자에 집중돼 있다.

삼성증권의 합류는 이 같은 경쟁 구도에 변화를 줄 변수로 꼽힌다. 삼성증권은 지난 6월 말 별도 기준 자본총계가 8조 1566억원에 달하며, 대규모 자산관리(WM)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자와의 고객 유치 경쟁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6월 말 기준 리테일 고객자산은 652조 4000억원, 고액자산가 고객은 57만 2000명에 달한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시장 진입을 위한

자본과 실적 기반을 갖추고도 인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올해 상반기 자본총계는 8조 3495억원으로 삼성증권보다 많고,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514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9% 증가했다. 그러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인가 심사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발행어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증권사들의 고민은 조달 이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발행어음 조달액 가운데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올해 10%에서 내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기업대출, 메자닌, 벤처펀드 등으로 투자처를 확대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안정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조에 따라 증권사의 위험인수 영업이 본격화할 경우 개별 증권사의 우량자산 선별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른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김학균 “금리 움직이는 건 연준 아닌 재정”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KRX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진단
재정적자·유가불안 금리 상승 압력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선이 중앙은행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 등이 국채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X 출입기자단·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해 “지금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있지 않다”며 “이미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갔고 연준이 이를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2022~2023년 간축기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신영증권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국 기준금리 고점은 5.25~5.50%였지만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 고점은 각각 4.99%, 5.11%였다.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3.75~4.00% 수준임에도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각각 5.02%,

5.36%까지 상승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 경제가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을 서둘러야 할 만큼 과열된 상황도 아니라고 봤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강하지 않은 만큼 최근 금리 상승을 물가와 경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2분기 재정적자는 GDP의 5.55%에 달한다”며 “미국 뿐 아니라 영국과 일본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부채를 조달하는 비용이 커져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하은 기자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6000억 펀다

30일부터 10영업일간 선착순 판매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조기 완판 이후, 금융당국이 4개월 만에 2차 상품을 내놓는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다. 초기 흥행을 이어가면서도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1차 투자자의 재가입은 제한하고,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물량은 전체의 절반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해 6000억원이 소진되면 판매 기간 중에도 조기 마감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5년 만기 폐쇄형 공모펀드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예정된 판매 기간보다 일찍 물

량을 소진하면서 추가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 수요가 확인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2차 펀드는 1차 상품에 실제 투자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1차 가입을 위해 전용 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1차 또는 2차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내년 이후 출시되는 상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다.

판매 첫 5영업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한다. 1차 판매 당시 20%였던 우선 배정 비중을 30%포인트 높였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민 전용 물량과 일반 물량은 판매 첫날부터 동시에 모집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美금리 제자리인데… 미국채 ETF 손실펍 3분의 1로 축소

원·달러 환율 변동 수익률 좌우

국내 상장 미국채 10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손실 폭이 열흘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원·달러 환율의 비교 기준점이 달라지면서 환노출형 ETF 수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TIGER 미국채10년선물’의 최근 1개월 손실률은 이달 11일 -6.32%에서 21일 -2.27%로 축소됐다.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은 -6.23%에서 -2.28%로,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는 -5.97%에서

-1.87%로 개선됐다. 세 종목 모두 손실펍이 4%포인트 안팎 줄었다. 반면 환헤지형인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는 같은 기간 손실펍이 -1.56%에서 -2.03%로,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는 -1.18%에서 -1.45%로 확대됐다.

환노출형 ETF의 손실 축소는 환율 영향이 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1일 1415.3원에서 한 달간 5.45% 하락했지만, 지난달 21일 1393.0원부터 한 달간 하락률은 0.66%에 그쳤다. 두 구간의 차이인 4.79%포인트는 환노출형 ETF의 손실 축소 폭인 3.95~4.10%포인트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달 10일 4.708%에서 이달 16일 한때 5.004%까지 올랐지만, 이달 11일 4.975%와 21일 4.948%의 차이는 0.027%포인트에 불과했다.

개인은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저가 매수에 나섰다. 최근 한 달간 개인은 ‘TIGER 미국채10년선물’을 36억 5800만원, ‘KODEX 미국10년국채선물’을 17억 3300만원,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를 66억 4500만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세 종목을 각각 38억 9100만원, 17억 3300만원, 64억 6000만원 순매도했다. 향후 환율과 금리 방향이 ETF 수익률을 다시 가를 전망이다.

/김아영 기자 aykim@

거래소, 자체 산업분류체계 ‘KRICS’ 도입

9개 섹터·129개 하위산업으로 세분화

한국거래소가 국내 산업구조와 상장기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 산업분류체계(KRICS)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산업환경에 적합한 상장기업의 산업별 분류와 포지셔닝 관리, 다양한 자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KRX 산업분류체계(KRICS·KRX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구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KRICS는 국내 산업구조와 상장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산업구조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거래소는 23일부터 ‘KRX 산업분류체계 방

법론’을 시행하고, 내달 26일부터 KRX 인덱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준에 따른 산업분류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표 대상은 KRX 상장종목의 KRICS 1:2 단계 산업분류 결과와 주가·거래량 등 관련 시장 데이터다.

KRICS는 국내 경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조에 맞춰 9개 섹터를 최상위로 두고 산업그룹·산업·하위산업으로 이어지는 4단계 계층구조로 구성됐다.

1단계 섹터 9개, 2단계 산업그룹 24개, 3단계 산업 60개, 4단계 하위산업 129개로 세분화된다.

/신하은 기자